

가족을 가르치라

핵심 구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라.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이를 되새기라.”

신명기 6:6,7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6:3-9

우리의 핵심 구절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례 없는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우리를 그 영향력 아래 사로잡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넘기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모든 행위는 영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의 11%가 문제성 소셜 미디어 행동 징후를 보이며, 이는 2018년 7%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학생은 13%, 남학생은 9%입니다.

• 문제성 사용은 정신적·사회적 웰빙 저하, 약물 사용 증가, 수면 장애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인은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높입니다.

임상 전문가들은 참여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의 자기 조절 시스템을 압도하여, 강박적 사용, 비교 불안,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휴대폰에 파묻혀 있는 성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쇼핑 카트나 식당 유아용 의자에 앉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오락을 즐깁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웰빙과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위로의 연고를 옹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화와 고요함,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하리로다.” (시편 91:1,2). 우리는 어떻게 그 피난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교훈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핵심 구절들은 경건한 가정 분위기를 지혜롭게 권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삶에 지극히 건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정의 가장이 먼저 시작해야 하며,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규례는 바르므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여호와와 판단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금보다 더 소망할 만하다. ...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을 지키는 데에는 큰 상이 있나이다.” 시편 19:7-11

이 시편 말씀의 힘을 깨닫고서,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가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한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스승이 만 명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15).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골로새서 3:21). 우리가 모든 기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도록 이끄는 은혜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